PHOTO ESSAY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서울숲

가을 연못을 내려다본다. 짙은 물빛 위에 노랑어리연 잎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런데 모습이 제각각이다. 윤기가 흐르는 초록 잎이 있는가 하면 누렇게 물들거나 검붉게 변해가는 잎도 있다. 어떤 잎은 잿빛으로 바싹 말라 오그라든 채 물 위에 떠 있다. 줄곧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주어진 시간을 다 살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이어지지만 수명은 한 시절에 그친다. 물 위에서도 마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잎들을 이어보면 시듦의 과정과 움틈의 기운이 함께 느껴진다. 물 아래 뿌리는 아마도 시듦의 계절을 견디고 봄에 다시 새 잎을 밀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마른 잎 한쪽에는 초록 얼룩이 남아 있다. 마름 속에서도 푸르름은 끝까지 버틴다. 먼저 말랐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아직 푸르다고 뽐내지 않는다. 저마다 제 몫의 날들을 보낼 뿐이다. 연못 위의 잎들은 그렇게 흐르는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아홉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계사